

가을 조혜운 바이올린 리사이틀 샤콘느에 빠지다 *fall in Chaconne*

L. v. Beethoven

T. A. Vit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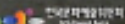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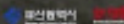
S. Prokofiev

Piano 신지아


2013. 9.13 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주최 | 아르헨크코리아 051.442.1941

후원 |  한국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예고 한국예총 예너스음대 보스본대학교

특별후원 |  M-Dreamers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 2013년 모든 권리 보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든 수익금 일부는 후원자에게 사용됩니다.

가을 조혜운 바이올린 리사이틀 샤콘느에 빠지다 *fall in Chaconne*

가을 사콘느에 빠지다
fall in Chaconne

풍부한 감성과 테크닉을 겸비한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은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비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도미하여 매네스 음대 (Mannes College of Arts)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거쳐 보스턴대학교 (Boston University)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일찍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탁월한 음악성과 뛰어난 해석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Italian Radio Sintonia와 협연하며 이탈리아 현지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였고, The Special Presentation Winner 오디션 우승으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뉴욕대비 리시이틀을 성공리에 가졌다. 그녀가 리더로 활동하였던 Clara Piano Quartet은 보스턴국제실내악콩쿨 (ICMEC)에 1위 입상하며 미국 카네기홀에서 실내악 데뷔 연주회를 가졌고, 20th Century Chamber Music Festival (New School University) 초청연주 및 Brahms Festival 실내악연주 (Boston University), 뉴저지필하모니 객원수석을 역임하며 뉴욕과 보스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2009년 귀국하여 창원시향 수석단원 (2009-2012)을 역임하였고, 부산필드심포니 객원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 수석단원, 조이오브스트링스 수석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세 번의 독주회, 부산음협주관 신인음악회, 프랑스대사관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음악회, 예술의전당 W3K를 개관 페스티벌, 국제신문 U콘서트 출연, 김해유스오케스트라, 바다오케스트라,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독주 및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Fall Foliage Chamber Music Program (2008년 미국), 알레이시아 정부초청 International Children's Arts and Culture Festival (2011년 밀레이시아), International Academy of Arts, Cremona (2012년 이탈리아), 평창 스페셜 뮤직페스티벌 (2013년 평창) 등의 국제적인 뮤직페스티벌 강사로 초청되어 연주 및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조이오브스트링스 수석단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영재예술교육원, 부산예고, 경기예고, 순화예중, 개원예중, 부산예중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Violin 조혜운
Hye-Woon Cho



Piano 신지아 Ji-Ah Shin

-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졸업
-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졸업
- 권각콩쿨, 부산콩쿨, 부산음협 콩쿨 1위
- 삼익콩쿨, 부산음악콩쿨 상위입상
-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
-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연주 (일본 도쿄, 오사카)
- 금호 영아티스트 독주회
- 음악춘추 초청 우수신인대위 연주회 (세종문화회관)
- 이태리 티볼리 국제 음악캠프 참가 및 연주
- KNJA 피아니스트 시리즈 독주회
- 독일 Sommer theater, Neua Aula, Brans Saal 다수 연주
- 독일 Detmold Stadt 주최 Familien Konzert
- 부산음악협회 초청 신인음악회 (부산문화회관)
- 귀국독주회 (금호아트홀)
- 부산음악협회 Piano Grand Festival
- 뉴 프림 오케스트라 협연 (부산문화회관)
-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대전, 명지국제음악제, 범음악제, 21세기악회 등 현대음악 연주
- KNJA Piano Festival (피아노로 듣는 베토벤 교향곡)
- Quartet X 정기연주회-2010년 프로젝트 (슈만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실내악 전국연주회)
- 부산 궁중문화회관 수유음악회 독주회
- 부산예중·고, 부산교대, 개원예중, 인천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음악원 감사 역임
- 현, 독주회와 앙상블 연주자로 활동 중



P.R.O.G.R.A.M NOTE

L. v. Beethoven Violin Sonata No.8 in G Major, Op.30-3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8번 사장조 Op.30-3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에게 헌정된 3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 맨 마지막 곡인 이 작품은 그 당시 베토벤이 즐겨 시도했던 빈 (wien) 교외의 산책에서 느꼈던 전원의 인상을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만큼 이 곡은 평화로운 자연을 화상하게 하는 기분이 곳곳에 넘쳐흐르는 곡이다. 제7번이 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치밀한 설계가 있었음에 비해서 이 곡은 경쾌한 기분이 중심을 뒀기 때문인지 구성상의 특징은 별로 찾을 수가 없다. 1802년에 완성되어 다음해에 출판 됐다.

제1악장은 소나타형식으로 두 개의 악기에 의한 유니즌으로 시작되어서 유창한 제1주제가 피아노와 바이올린 순서로 연주된다. 제2주제는 리단조로 나타나고 이것이 라장조로 안정된다. 제2악장은 느리고 조용한 제2악장과 마뉴에트의 제3악장을 합친 듯한 악장으로 상당히 긴 악장이다. 귀족취미의 전이한 분위기가 큰 인상을 남긴다. 제3악장은 론도형식으로 대단히 향차고 경쾌한 성격의 악장이다.

T. A. Vitali Chaconne in G minor

비탈리 샤콘느 사단조

샤콘느 (chaconne)는 바로크 시대의 변주 형식으로 16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온 화음 진행을 기본으로 하는 느린 무곡이며 통상 3박자이고 정조이며 이들 기본 음형을 변주하여 전개하는 곡이다. 바흐의 샤콘느는 남성적이며 "영원으로의 끝없는 바상"이라는 별명을 갖는 한편, 비탈리의 샤콘느는 여성적이며 "지상에서 제일 슬픈 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샤콘느는 3/2박자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비탈리의 곡이 아니라는 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즉 곡을 진행시키는 방법이나 화성의 대담함을 가리켜 낭만파 시대에 쓰인 위작이 아닌가를 의심하는 견해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 비탈리의 자필본이 발견되었다고도 하여, 일반적으로는 비탈리의 작품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곡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만큼이나 오래된 작품으로, 비탈리가 당시 스타일에 따라 바이올린과 통주저음을 위해 작곡했으나 1867년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교수인 디비트 (Ferdinand David, 1810~1873)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편곡하여 출판함으로써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 그 뒤 작곡가 레스피기 (Ottorino Respighi, 1879~1936)가 이를 오르간 반주로 편곡했으며, 바이올리니스트인 프란체스카티 (Zino Francescatti)는 관현악 반주로 편곡하기도 했다. 그 시대에 알려진 모든 바이올린 기교를 실험하고 있으며, 정열적이면서 어두운 주제와 풍부한 대비를 가진 변주의 교묘함이 돋보인다. 풍부한 창작력과 뛰어난 조성 구조 위에, 기술적인 도전을 요구하는 계속적인 변주형식으로 되어 있는 웅장한 작품이다.

S. Prokofiev Violin Sonata No. 2 in D Major, Op.94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소나타 No.2 라장조

2차 세계 대전을 피해 다른 소련 예술가들과 함께 우랄산맥으로 피신한 프로코피예프는 1942년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Op.94를 완성하였는데 이 곡을 좋아한 그의 절친한 친구 데이비드 오이스트라흐 (David Oistrakh)를 위해서 1943년 피아노반주 원곡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편곡해 주었다. 프로코피예프는 2곡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남겼다. 쇼스타코비치도 생전에 이 곡을 높이 평가했으며 오늘날에는 원곡인 플루트 소나타보다 더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이 곡은 프로코피예프 작품답지 않게 고전적 성향의 작품이면서 솔로 바이올린의 우아함과 기쁨을 가장의 승리로 잘 표현하였다. 1번 소나타가 약전고두의 심각한 분위기라면 2번 소나타는 침착하고 다정다감하게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대단히 열정적이고 로맨틱해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넘친다. 특히 1, 2악장이 그런 성격인데 발레 음악인 <로미오와 줄리엣>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제3악장은 매우 리드미컬한 악곡이어서 근대 작곡가로서의 프로코피예프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애수가 넘치는 1악장, 광시곡적인 주제의 2악장, 노래하듯 로맨틱한 선율의 3악장, 악동감 넘치는 4악장 등, 전체적으로 간결한 표현, 이에 더해진 바이올린 특유의 선율은 원곡(플루트)이상으로 아름다움이 넘친다. 이 곡은 파리 망명시절부터 고우관계를 맺었던 요제프 시게티 (Josef Szigeti)에게 헌정되었고, 이 곡의 초연은 데이비드 오이스트라흐 (David Oistrakh)와 피아니스트인 레프 오보린 (Lev Oborin)에 의해 1944년 8월17일에 초연되었다.



PROGRAM

L. v. Beethoven [1770-1827]

Violin Sonata No.8 in G Major, Op.30-3

- I . Allegro assai
- II . Tempo di menuetto
- III . Allegro

T. A. Vitali [1660-1711]

Chaconne in G minor

Intermission

S. Prokofiev [1891-1953]

Sonata No.2 for Violin and Piano in D Major, Op.94

- I . Moderato
- II . Scherzo (Presto)
- III . Andante
- IV . Allegro con brio

